

俗離山과 雉岳山の 靑石塔 二例

張 忠 植

一九七四年 一〇월 二〇일 필자는 俗離山 一帶의 寺蹟을 조사한 바 있다. 法住寺의 西麓에 자리 잡은 汝寂庵에서 우연히 靑石塔(粘板岩製) 一基를 대하게 되었고, 同年 一二月에는 다시 강원도 雉岳山에서 同一系統의 靑石塔 一基를 또 接하게 되었다.

이들 탑은 그 크기에 있어서나 또는 그 彫法에 있어서 大同小異하고 造成된 시기 역시 거의 비슷하게 생각되므로 궤 흥미를 끌고 있다. 더구나 俗離山과 雉岳山은 무려 수백리의 遠距離에 있으면서 이러한 同形의 小塔을 대하게 되는 것은 역시 우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먼저 俗離山의 塔에서부터 살펴보자.

탑이 위치하는 곳은 法住寺로부터 서쪽 약 六키로 지점에 있다. 속리산의 庵子는 대부분 큰 절을 중심으로 동쪽에 散在해 있으나 이 靑石塔이 있는 汝寂庵만 唯獨 서쪽에 있으므로 庵자의 방문객이 별로 없어 아직까지 世人的 注目を 받지 못한 듯하다.

東向한 암자에서 약 二백 미터 아랫쪽 汝寂庵의 舊墟로 생각되는 寺址에는 상당수의 瓦片이 퇴적되어 있고, 또 石築은 제법 우람하게 築造되어 있으므로 비록 암자이긴 하지만 제법 寺格을 갖추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탑이 安置된 곳은 現 庵子의 庭園 盤石 위에 있다. 아마 舊墟에서 발굴되어 이곳으로 移置되었을는지 小形의 花崗岩 屋身石을 제외하



圖 1. 俗離山 汝寂庵 靑石塔

고는 基壇과 屋身 그리고 相輪 부분이 모두 결실되었다. 따라서 탑은 기단 代用으로 前記한 花崗石製의 小形 屋身石을 사용하였고, 그 위에 놓여 있다. 그러나 同形の 花崗석 탑은 발견되지 않았다.

花崗석 제 屋身을 제외한 탑의 총고는 약 六〇센치이고 제일 아래층 받침석은 四방 약 四五센치의 正方形으로서 四방에 複瓣의 蓮花紋을 새긴 모양이 優美하다. 複瓣의 蓮花紋 위에는 六매의 小形 屋蓋石이 포개져 있다. 露盤은 上層 屋蓋石과 同一石으로서 약 二〇센치의 正方形에



圖 2. 雉岳山 普門寺 靑石塔

두께는 약 五센치이다. 相輪은 모두 없어졌고 대신 자연석을 올려 놓았을 뿐이다. 露盤 위에는 一邊이 약 二〇센치, 두께 약 五센치의 屋身이 唯一하게 있어 缺失된 탑신 부분의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塔의 心部에는 擦柱孔이 四방 약 五센치의 크기로 塔의 底部까지 貫通해 있으므로 전체 높이는 약 二미터 정도의 小形 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雉岳山 탑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탑은 강원도 원주 雉岳山의 世稱 普門寺에 위치한다. 당구동 國亨寺에 약 二km 떨어진 이 절의 存廢에 관하여는 전연 알 수 없고 상당히 오랜 시일동안 폐허가 되어 있는 듯하다.

약 三년 전에 지금의 정을 주장하는 노파가 절을 재건하고 整地作業 中에 小形の 靑石塔이 出土되므로 모아서 현 법당앞에 안치했다고 한다. 이 小塔도 기단석이 없어 본 모습을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의 탑은 아래 연화받침이 二단, 옥개석이 五매, 그리고 속리산과는 달리 三매의 옥신이 있어 탑의 규모를 짐작케 하고 있다. 따라서 五층의 탑을 유지하고 있으나 一층과 四층의 옥신이 없어 자연석으로 代用하여 있다. 전체 높이는 八八센치, 연화받침은 一邊이 五三센치로서 下石은 複瓣의 연화를 조각하고, 上石은 單瓣으로 浮彫되었다.

一층 옥개석의 크기는 一邊이 四四센치, 二층 四〇, 三층 三七, 四층 三四, 五층 三〇으로 약 三―四센치의 체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옥신의 높이는 三매 共히 약 六센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옥신의 面에는 梵書를 새겼으나 제일 上層은 거꾸로 놓여 있음을 알겠다. 사문은 역시 缺失되었고 上部옥개석 중앙에는 擦柱孔이 四방 四센치의 크기로 역시 底部를 貫通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의 탑은 海印寺 願堂廡과 金山寺 多層塔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고 그 조각 手法이 金山寺의 多層塔 ①과 同一 양식으로 생각되므로 고려 초기에盛行하였던 粘板岩의 工藝的 小塔으로서 一〇세기 前半期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註

① 高裕燮 「朝鮮塔婆의 樣式變遷」 (佛教學報 三・四輯誌, 동국대학교)